

트럼프, 2024년 대선출마 공식선언

“美우선정책 美를 다시 위대하게”
퇴임 22개월 만에 전면 등장
美 정치권 대선국면 조기전환
블룸버그 “공화 입장선 타이밍 최악”

도널드 트럼프(76) 미국 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배해 작년 1월 20일 4년의 임기를 마치고 쓸쓸히 퇴장한 지 1년 10개월 만에 전면 등장한 것이다. 2016년, 2020년에 이어 세 번째 대선 도전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 자택에서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기 위해 아내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함께 등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밤 플로리다 자택인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가진 연설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 오늘 밤 나는 미국 대통령 후보를 발표한다”고 말하며 차기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2년 전 우리는 위대한 국가였고, 곧 우리는 다시 위대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4년 더 집권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나는 모든 정책에서 다시 미국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선거위원회(FEC)에 2024년 대선 출마를 위한 서류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년 대선과 관련해 공식 입후보한 첫 인사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중간선거를 끝낸 미 정치권은 내년 1월 새 의회 출범을 계기로 대선 국면으로의 조기 전환을 예고했다.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선언으로 잠룡 간의 치열한 싸움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도 대응 전략 수립에 발 빠르게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간선거 전날인 지난 7일 오하이오주 유세에서 “마라라고에서 15일 매우 큰

발표를 할 것”이라고 대선 출마 선언을 예고했다.

공화당의 중간선거 압승 분위기를 타고 자신의 대선 도전 의지를 극대화하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상원 탈환에 실패했고 하원도 3석 안팎의 이슬이슬한 우위가 점쳐지면서 공화당에선 ‘트럼프 책임론’이 부각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간선거 과정에서 지난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자신의 노선을 따르는 인사들을 대거 후보로 내세워 다 이긴 계임을 놓쳤다는 비판이었다.

참모들은 출마 선언을 미루자고 설득했지만 결국 발표를 강행했다.

중간선거 고전으로 당내 입지가 좁아진 처지를 정면 돌파하고 조여오는 당국의 수사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의 출마선언과 관련해 “공화당으로선 타이밍이 이보다 나쁠 수 없다”며 “유권자들이 낙태권 같은 사회적 문제에 극단적 입장을 가진 선거부정론자들을 거부함에 따라 트럼프 지지 후보자들이 주요 선거에서 졌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내 경쟁을 뚫고 대선 후보

가 된다면 바이든 대통령과의 ‘리턴매치’ 가능성이 작지 않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의 중간선거 선전 일등 공신으로 평가돼 그간 불거졌던 차기대선 불출마 압박에서도 벗어난 기류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중간선거 졸전으로 공화당 지지층이 대선 후보를 찾는 현상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 당장 잠룡 중 한 명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는 이번 선거에서의 압승으로 재선에 성공해 트럼프를 대체할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도 그를 윗아랫 가능성이 없지 않다.

1·6 의사당 난입사태 조장, 조지아주에 대한 대선 결과 변경 압력 의혹, 퇴임 시 기밀문서 반출 의혹 등 수사당국과 사법부의 칼날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내 경선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후보가 되더라도 완주가 가능할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

169명 사망 아이티 콜레라 확산

의심 환자 3주만에 4배 늘어
환자 절반 이상은 19세 이하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의 콜레라 확산세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WHO) 미주본부인 범미보건기구(PAHO)가 아이티 보건부 자료를 인용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아이티에서는 전날 기준 806명의 콜레라 확진 환자와 8625명의 의심 사례가 보고됐다.

의심 환자의 경우 2천명을 밀돌던 3주 전과 비교해 4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환자 절반 이상은 19세 이하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연령대는 영유아인 1~4대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169명이라고 범미보건기구는 덧붙였다.

진티 필스 아이티 보건부 대변인은 현지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백신과 치료 약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면서도 콜레라 예방 차원에서만 놓고 보면 최근 확산 위험이 더 커진 상태라고 우려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콜레라는 급성 설사와 탈수를 일으키는 전염병이다.

오염된 물이나 음식 등을 통해 전파되며,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아이티에서는 2010년 네팔에서 파견된 평화유지군에 의해 처음 발병 사례가 나온 이후 지금까지 80만 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했고, 약 1만 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국경과 접한 폴란드 동부 프르제미슈치 마을의 폭발 현장을 촬영한 사진. 이날 러시아로부터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2기가 마을에 떨어져 현재까지 2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은 누가 쏘냐

바이든 “러시아발 아닐 수도”
폴란드 “미사일은 러시아제”

15일(현지시간) 폴란드 동부 시골 마을에 미사일이 떨어진 사건과 관련해 도대체 누가 이 미사일을 쏜 것인지 두고 추측이 분분하다.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등 일각의 의심대로 러시아가 발사한 게 맞다면 이번 타격이 고의인지, 실수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영국 스카이뉴스 등이 보도했다. 이 미사일이 러시아가 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해도 러시아가 작정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공격했느냐, 아니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와중에 실수로 폴란드를 맞췄느냐에 따라 나토 등 서방의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토 등이 자칫 과잉 대응할 경우 필요 이상으로 위기가 고조돼 9개월째로 접어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이 미사일을 누가 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폴란드는 미사일 잔해를 보면 러시아가 확실하다며 우크라이나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방국들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폴란드 정부와 협조하여 사태를 파악 중이며, 이를 토대로 다음 단계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이번 소식을 보고받고 우방국들과 긴급 회동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이 러시아에서 발사됐을 것이라는 성급한 결론을 경계했다.

러시아도 러시아 미사일이 폴란드 영토에 떨어졌다는 폴란드측 주장 자체를 반박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는 갈등 상황을 고조시키기 위한 폴란드의 ‘의도적 도발’이라고 주장하며 폴란드 국경을 목표로 한 러시아의 공격은 시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기후활동가 ‘명화 테러’ 92개 박물관 공동대응

대영박물관·루브르 등 참여

기후 활동가들의 명화 테러 사건이 세계 곳곳에서 잇따르면서 주요 박물관들도 공동성명을 발표해 대응에 나섰다.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과 런던 대영박물관, 파리 루브르 박물관 등 92곳은 “박물관 미술품에 대한 공격”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최근 몇 주간 전 세계 박물관에 전시된 미술품들이 계속해서 공격받고 있다”며 “활동가들은 대체 불가능한 작품들이 훼손에 취약

하다는 점을 과소평가하고 있는데, 작품들은 세계 문화유산으로써 보존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후활동가들의 명화 훼손으로 박물관 관계자들이 점점 깊은 좌절감에 빠지고 있으며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다만 “박물관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대화에 참여하고 사회 담론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을 주도한 국제박물관협의회(ICOM)는 발표 이후 “박물관들이 작품들의 안전과 기후활동가의 우려를 모두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다”고 설명했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 각국에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한 활동가들의 명화 훼손 퍼포먼스가 이어져왔다.

이달만 해도 지난 3일 이탈리아 기후단체 ‘올티마 제네라지오네’ 소속 활동가 로마 보나파르테 궁전 미술관에 전시된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씨 뿌리는 사람’에 아채수프를 끼얹었다.

이를 뒤에는 두 여성이 스페인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에 전시된 고야 작품에 접착제를 문었고 15일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레오폴트 박물관에 전시된 클림트의 작품도 액체 테러를 당했다.

이밖에 네덜란드와 독일 등 지역의 미술관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명화 훼손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현재까지 작품이 영구손상된 경우는 없었지만 논쟁은 점차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데크의 세대교체!”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